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 (하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하편>>

## ◆차례◆

###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 (1) 서사 갈래의 흐름

- \*구운몽-----1쪽 (40문제)
- \*만세전-----23쪽 (43문제)
- \*겨울 나들이-----45쪽 (19문제)

#### (3) 극 갈래의 흐름

- \*봉산 탈춤-----59쪽 (43문제)
- \*파수꾼-----83쪽 (25문제)

#### (4) 교술 갈래의 흐름

- \*일야구도하기-----101쪽 (14문제)
- \*뒤지가 진적-----110쪽 (2문제)

### 4.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 \*용소와 며느리바위-----113쪽 (8문제)
- \*축규화-----120쪽 (21문제)
- \*평상이 있는 국숫집-----130쪽 (16문제)

#### (2) 한국 문학의 특성

- \*흥보가-----139쪽 (24문제)
- \*뫼벼들 갈히 것거-----153쪽 (13문제)
- \*거산호Ⅱ, 이니스프리 호수 섬-----161쪽 (14문제)

#### (3) 한국 문학의 확장 and 발전

- \*정선 아리랑-----169쪽 (8문제)
- \*황진이-----175쪽 (23문제)

▶ 전체 정답-----190쪽

▶ 해설-----193쪽

(버전: 2020.06.17.)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체크!**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3-(2) 구운몽

**정리**

<b>갈래</b>	고전 소설, 장편 소설, 몽 자유 소설	<b>성격</b>	환상적, 불교적
<b>제제</b>	연화봉 승려 성진이 꿈속 에서 양소유가 되어 겪는 다양한 일과 깨달음	<b>주제</b>	꿈을 통해 부귀영화의 덧없음 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 를 추구함.
<b>특징</b>	①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몽 구조를 지님. ②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짐. ③ 조선 시대 사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됨. ④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짐.		
<b>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꿈꾸기 전]</b> 계율을 어기고 벌을 받는 성진                      - 승려 성진이 팔선녀와 만난 후 속세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끌리자 그                      것을 알아챈 육관 대사가 성진을 인간 세계로 추방하는 벌을 내린다.</li> <li>• <b>[꿈]</b>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공명을 누리는 양소유                      - 성진은 양소유로 환생하여 함께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만나 인연                      을 맺는 한편,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여 승상이 된다.</li> <li>• <b>[꿈 깨 후]</b> 깨달음을 얻는 성진                      - 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양소유가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                      불교에 귀의하고자 결심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대중을 교화하는 데 힘쓰다 극락왕생한다.</li> </ul>		

**핵심 내용**

■ **고전 소설의 개념**

: 일반적으로 개화기 소설이 등장하는 19세기 말까지의 소설을 가리킴.

■ **고전 소설로서 <구운몽>의 특징**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	<구운몽>의 특징
<b>인물</b>	재자가인(才子佳人) 형, 영웅적 기질을 지님.	- 성진: 젊고 총명한 승려 - 양소유: 문장과 무예에 능통함.
<b>사건 전개</b>	비현실적, 우연적 사건 전개	비현실적, 우연적 사건 전개
<b>배경</b>	중국, 우리나라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함.
<b>주제</b>	권선징악적 주제, 행복한 결말	주인공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음.
<b>구성</b>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의 일생이 전개되는 일대기적 구성	작품 전체는 환몽 구조, 액자식 구성이며 양소유의 삶은 일대기적 구성

■ **<구운몽>의 환몽 구조**

환몽 구조란 꿈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되 그것이 환상적인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꿈 이전 → 꿈 → 꿈 이후'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삶이란 허망(무상)하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 제목의 의미



아홉 구름의 꿈

<p><b>아홉 명의 인물</b> 성진과 팔선녀 (양소유와 여덟 아내)</p>	<p><b>덧없는 인생</b> 하늘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은 덧없는 세상일을 이룰 때 쓰이는 경우가 많음.</p>	<p><b>꿈 또는 꿈 같은 인생</b> 인물이 꿈속 경험을 통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음.</p>
---	--	---

아홉 사람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아홉 사람의 덧없는 꿈 이야기 또는 꿈을 통해 깨닫는 이야기임.

■ '꿈'을 전후한 성진의 가치관 변화



■ <구운몽>의 등장인물

	성진	팔선녀
꿈꾸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관 대사가 중히 여기는 제자</li> <li>• 팔선녀를 만나 세속 부귀영화를 흠모했다가,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태어남.</li> <li>• 꿈에서 깬 뒤 불도에 정진하여 극락세계로 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산을 다스리는 선녀 위 부인을 모시는 여덟 명의 선녀들</li> <li>• 성진의 마음을 어지럽힌 별로 이들도 인간 세상에 태어남.</li> <li>• 꿈에서 깬 뒤 불도에 귀의하여 성진과 함께 극락세계로 감.</li> </ul>
꿈 속	<p><b>양소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진이 환생한 인간 세상의 인물</li> <li>• 용모가 아름답고 문무에 뛰어난 인물로, 큰 업적을 이루고 부귀공명을 누림.</li> <li>• 말년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불도의 귀의할 결심을 하는 찰나 꿈에서 깬.</li> </ul>	<p><b>양소유의 2제 6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선녀가 환생한 인간 세상의 인물들</li> <li>• 각자 개성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며, 모두 양소유와 결혼함.</li> <li>• 양소유의 불도 귀의를 함께하고자 하다가 꿈에서 깬.</li> </ul>
꿈 깬 후	<p><b>육관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진의 스승으로 중국 연화봉에서 불도를 가르침.</li> <li>• 하룻밤 꿈을 통해 성진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고, 성진이 깨달음을 얻자 그에게 연화도량을 맡기고 서천으로 돌아감.</li> </ul>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유는 본디 하남(河南)의 벼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 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숙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백 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목과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儒道)·선도(仙道)·불도(佛道)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三教)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生前)의 사업과 신후(身後)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물니 진시황·한 무제·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五臺)에 올라 문수보살(文殊菩薩)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중략>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홀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胡僧)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을 뵈웁니다.”

태사가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 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공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저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년을 상종하였으리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樓臺)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公明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중략>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원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 버리고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金剪刀)를 내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 버렸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대사께 사퇴하기를,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대사가 이르기를,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 인이 능히 이렇듯 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다.”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白毫)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뒷부분 줄거리]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 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 하였고,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 김만중, 「구운몽」 -

**비슬고등학교 (대구)**

1. **윗글과 <조건 1>의 주인공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쓰고, ㉡깨달음을 얻기 전 두 인물이 지향하는 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조건 2>를 참고하여 쓰시오.**

**<조건 1>**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돌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 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에서

**<조건 2>**

• ㉠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할 것.

**비슬고등학교 (대구)**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과 꿈을 오가는 환몽 구조를 통해 환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불교를 유교적 사상보다 더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운몽’은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의 숫자와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 ⑤ 인물 간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풍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3. ㉠ ~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말하는 이가 대상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 : 고사를 인용하여 지향할 바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물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
- ③ ㉢ : 노승은 양소유가 기억하는 바를 믿지 못해 추궁하고 있어.
- ④ ㉡ : 함께 지냈던 세월에 대해 후회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
- ⑤ ㉢ :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굳은 결심을 드러내고 있어.

**비슬고등학교 (대구)**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소설의 특징은 전기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전기성이란 비현실적 요소를 소설에 삽입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사건 해결의 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재자가인(才子佳人)이며, 조력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인과응보를 통해 고난을 극복한 후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나간 양소유의 모습에서 비범한 재자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석杖(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는 인물의 행위는 주인공을 위한 조력 행위라고 할 수 있어.
- ③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모습에서 작품의 전기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
- ④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닫는’ 모습에서 인과응보를 통해 외부의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성진이 깨달음을 얻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라는 설정은 행복한 결말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어.

※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나라 형상 연화봉에서 육관 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 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 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육관 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水晶宮)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좌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狂藥)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가 다섯 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자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 잔을 기울였다.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낮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중략>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물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禪房)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

두워졌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孔孟)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堯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권에 조회(朝會)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때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어 권의 경문과 백팔 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중략>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에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한 여덟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던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소유는 본디 하남(河南)의 배웃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인연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숙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떠뒀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백 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남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남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儒道)·선도(仙道)·불도(佛道)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三教)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生前)의 사업과 신후(身後)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한 무제·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五臺)에 올라 문수보살(文殊菩薩)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모든 남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중략>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A]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년을 상종하였으리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樓臺)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희롱하시나이까?”

[B]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公明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

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가 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 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값기 어렵나이다.”

- 김만중, <구운몽>

(나)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돌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 에서

**창동고등학교 (서울)**

5. 윗글 (가)에 등장하는 공간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속적 연민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의 실제 모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공간이다.
- ② 부귀공명이 현실화된 꿈의 공간 ㉡은 현실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공간인 ㉢과 대비된다.



- ③ 꿈속 공간인 ㉠과 ㉡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 삶을 미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 ④ 불교적 색채가 담긴 ㉢과 유교적 질서가 드러나는 ㉣이 대비되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⑤ ㉤은 ㉥으로 오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꿈과 현실의 중간계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6. 윗글 (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 ④ 소설 속 인물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몽자류 소설은 글자 그대로 '몽(夢)'자가 붙은 소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소설의 구조는 환몽구조로 주인공이 꿈을 꾸는 과정을 거쳐 꿈속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 다시 꿈에서 깨는 과정을 거쳐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구조이다. 이 때 꿈속에서 새로 태어난 주인공은 그 이전의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꿈을 깨면서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몽자류 소설은 현실과 꿈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대부분 이에 속하는 작품들의 현실인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는 다른 인물로서 꿈과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 ① 성진이 인간부귀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몽자류 소설의 현실 인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군.
- ② 소화상과 대승상이라는 대비적 지위를 통해 현실의 자아와 꿈 속 자아는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③ 양소유가 노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전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인물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군.
- ④ 꿈에서 깬 성진이 인간세상에서 입신양명한 양소유로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한 것이군.
- ⑤ 고승이 환술로 승상이 취몽 중인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은 꿈과 현실의 차이를 보다 크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창동고등학교 (서울)**

8. 윗글 (가)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B]는 직접적 설명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A]는 사건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B]는 묘사를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B]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A]는 이상적 공간의 모습, [B]는 현실적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⑤ [A]는 한 가지 사건을 상세히, [B]는 여러 사건을 빠른 호흡으로 서술하여 꿈과 현실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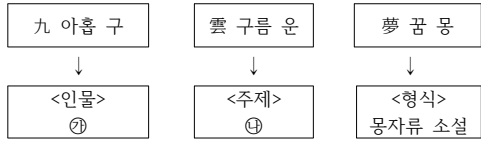
**창동고등학교 (서울)**

9. 윗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노화상과 김흔은 주인공을 각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용왕과 관음보살은 인간의 광약인 술이 부처의 계율을 어기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꿈속에서 조신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였고 성진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양소유의 삶은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반면 조신 가족의 삶은 가난이라는 세속의 난관이 담겨 있다.
- ⑤ 성진과 조신은 불가의 법문이 출세 지향적이라 품격이 없음에 회의를 느껴 보다 인간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10. 다음은 윗글 (가)의 제목 '구운몽(九雲夢)'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 ㉓과 ㉔에 들어갈 내용을 <인물>과 <주제>와 관련지어 쓰시오.



**창동고등학교 (서울)**

11. '조신설화'의 갈래를 설명한 글이다. <보기>의 밑줄 친 ㉓, ㉔에 해당하는 구체적 근거를 윗글 (나)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구비 문학인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을 아우르는 말로 '조신 설화'는 그 중 전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설은 ㉓ 특정 시대나 지역을 배경으로 인간과 그 행위를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다. 전설은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그 이야기의 사실을 믿으며 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념물이나 증거물이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당나라 형상 연화봉에서 육관 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 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 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육관 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水晶窟)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공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좌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狂藥)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가 다섯 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자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니 하나이다.”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 잔을 기울였다.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낮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오.’

하고 즉시 물로 내려가 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낮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香爐) 기운도 아니요, 화초(花草)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핏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에 팔선녀가 석고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재배하며 말하였다.

“여보살이여, 빈승은 연화도량 육관 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좁은 석고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 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 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성진이 답하기를, “넷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존자(達磨尊者)는 갈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습니다. 화상께서 육관 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룡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오. 마침 명주(明珠) 여덟 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손을 들어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여덟 봉오리 땅에 떨어져 여덟 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팔선녀가 각각 주워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고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 3-(2) 만세전

#### 정리

<b>갈래</b>	현대 소설, 중편 소설	<b>성격</b>	사실적, 비판적, 자기반성적
<b>배경</b>	• (시간) 만세(3·1 운동) 전개의 겨울, 1918년 • (공간) 일본과 식민지 조선		
<b>시점</b>	1인칭 주인공 시점		
<b>제재</b>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관부 연락선에서 겪은 일		
<b>주제</b>	일본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성찰		
<b>특징</b>	① 주인공이 겪은 일,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음. ②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음. ③ 주인공의 반성적 자기 성찰이 뚜렷함. ④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임.		
<b>구성</b>	<b>[발단]</b> 동경 유학 중인 주인공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 준비를 한다. <b>[전개]</b> '나'는 동경의 술집이나 고베에 들러 아는 여성들을 만난다. <b>[위기]</b> '나'는 시모노세키에서 탄 관부 연락선 안에서 식민 지배의 폭력적인 실상을 알고 분노한다. <b>[결정]</b> 부산에서 경성으로 오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더 잘 알게 된 '나'는 큰 분노, 깊은 환멸에 사로잡힌다. <b>[결말]</b> 경성에서 아내의 죽음을 지켜본 '나'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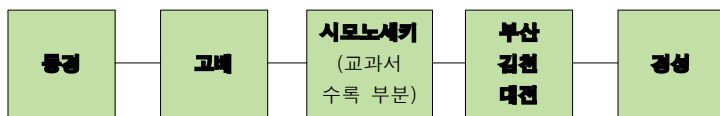
#### 핵심 내용

##### ■ 현대 소설의 개념

: 신소설 이후에 창작되기 시작한 본격적인 근대 소설. 근대적인 국문체로 쓰였고 등장인물이 개성적이고 입체적이며 사건 전개 방식이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 <만세전>의 여로 구조

: <만세전>은 주인공인 '나'(이인화)가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에 해당한다. <만세전>에서 이러한 구조는 '나'가 자기 자신과 조선의 현실을 점차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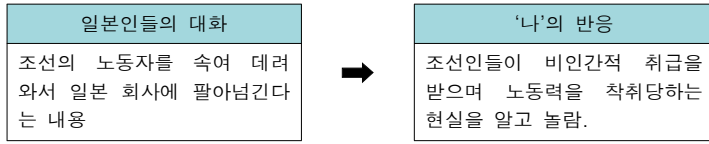
##### ■ <만세전>의 시점

<b>1인칭 주인공 시점</b>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서술함. → '나'의 시선에 따라 조선인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일본인의 태도와 당시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서술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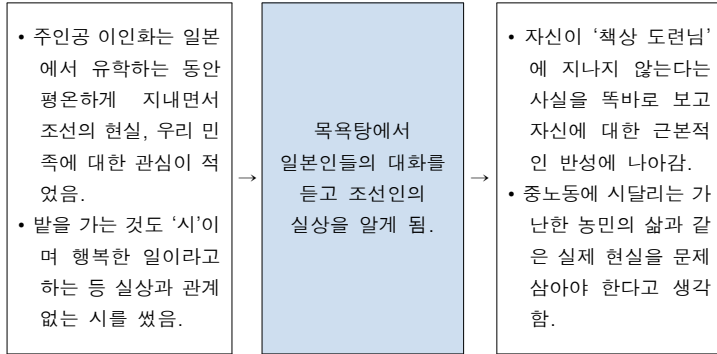
##### ■ 일본인들에 대한 '나'의 태도

일본인들과 관련된 말	.....	'나'의 태도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 '상판대기', '굴자', '촌뜨기' 등		못마땅하게 여김. (부정적 태도)

■ '나'가 받은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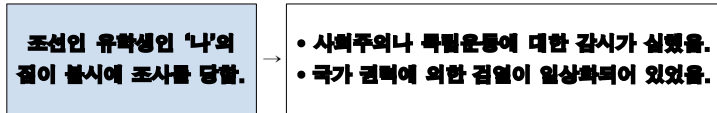


■ <만세전>의 의미 - 자기반성의 정신



→ 청년 지식인의 이 같은 자기반성은 염상섭 초기 문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문학사의 진전을 이끄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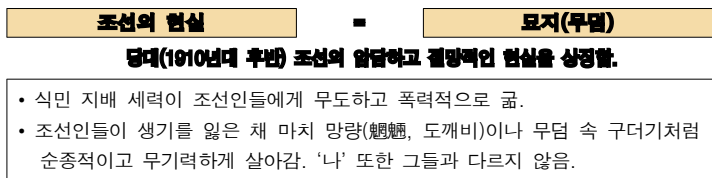
■ '나'의 젊이 조사당하는 부분에 드러난 당대 조선인의 상황



■ '뜨근뜨근한 눈물'의 의미

- ①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
- ②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고독감, 슬픔 등
- ③ 현실 대응과 관련한 무력감

■ <만세전>의 원제 '모지(무덤)'의 상징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안의 목욕탕에 들러 탕 안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쿠리[苦力] 말씀이에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제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는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결자는 병병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等分) 해 보고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한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제미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불러진 고사하고 반년짜는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증이 나서 뉘질 지경이면, 변화한 대판, 동경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수작으로, 나두 나두 하고 침을 하다시피 해 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 지방은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여기같은 미치지지를 못했으니까.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미구에는 동냥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다. 하하하.” (중략)

스물두셋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 인간성이 어떠한 사회가 어떠한 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 자(工夫子)나 얻어 하였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짜는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였다. 나두 팔구 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발을 갈라고 한다. 그러나 발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복옥(馥郁)한 생기가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 이니라…….’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팻밥모자에 연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데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拂되는 보수는 무엇인가.-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 값이다.

나는, 몸을 다 훑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복작대는 틈에서 부리나케 양복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올시다만, 여기 이인화(李寅華)란이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에, 나요. 왜 그러우?”

나는 결자의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결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단은 유창하게 한담시는 일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도 짓곳이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될까 봐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울지 같지 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演作)하는 앵무새의 격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 있건 예서 하구려.”

그래도 나는 기연가미연가하며, 역시 일어로 대답하였다.

“하여간 이리 좀 나오슈.”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언사의 오만한 것이 위선 귀에 거슬러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우.”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늘어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힘끔힘끔 결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 염상섭, <만세전>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욕탕’은 현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공간이다.
- ② ‘대판, 동경’은 조선인들이 살기 어려워 살길을 찾아 가려는 곳이다.
- ③ ‘책상 도련님’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나’의 상태이다.
- ④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이 많아 식민 지배가 심한 지역이다.
- ⑤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는 나에게 공핍한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해준 인물이다.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20년 소설 문학의 중심적인 사조는 사실주의였으며 이 시기 소설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였다. 사실주의적인 세계의 인식방법은 소설의 현실 인식의 태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식민지 조국의 현실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졌으며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정치 사회적인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 ① 일제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흙의 방순함에 취해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인식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당대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속아 공장일로 팔려가는 현실을 비참하게 그려내고 있다.

- ④ 조선인을 향한 일본인들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관심이 개인적인 삶에서 식민지 조선의 환경으로 옮겨져 현실 인식에 대한 깨달음을 보이고 있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인식 변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시대 현실을 반영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 현실 문제가 부각된다.
- ③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
- ④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⑤ 익명의 인물들에 대한 관찰 및 대화를 통해 서술자는 대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염상섭의 「만세전」은 잡지 <신생활>에 연재되었으며, 원래 제목은 <묘지(墓地)>였다. 이는 1910년대 조선의 절망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악한 무단정치, 가혹한 수탈, 친일적 행적을 일삼는 무리, 지식인의 고뇌와 각성 등이 뒤섞여 있는 묘지와 같은 상태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라는 표현에서 조선을 수탈하는 부정적 세력을 묘사하고 있어.
- ②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 서술자는 조선의 절망적 현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 ③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에서 시대적 소명을 지닌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어.
- ④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에서 친일적 행적을 일삼는 무리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고 있어.
- ⑤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에서 가혹한 수탈로 인해 무기력해진 조선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잘하구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 무엇 있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賃銀)이 험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리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꼭  
[A] 싫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빛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똥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가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육객의 한 때가 디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훑치기 시작하였다.

<중략>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흠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 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땀밥모자에 연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데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흠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흠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 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밥을 품삯이다.

<중략>

여덟 눈과 네 개의 손은 앞에 뉘어 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여덟 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통쯤 되는 검검한 골짜기에, 밀운(密雲)같이 가득히 찼다. 비릿한 해기(海氣)를 품은 차디찬 저녁 바람이, 쿿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잇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싸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 놓고, 검시(檢屍)나 하는 것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히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와 반비례로 육신육신해졌다.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릿느릿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 가지고, 내 손으로 하

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해 시계를 꺼내 들고,

“인제는 2분밖에 안 남았소. 난 갈 테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서류 멩텅이를 들어 뵈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갖다가 보고, 맥으로 보내 드려도 관계 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言下)에 쾌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는 ‘사’ 자나 레닌이라는 ‘레’ 자는 물론이러니와, 독립이라는 ‘독’ 자도 없었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 아니 설령 내가 불세비기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心寫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꺾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중략>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스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 가며 웅송그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력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全市)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 가고 수효가 줄어 가면서, 깜작깜작 줄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의 날날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제, 선훈선훈 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 가는 불빛이 따듯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뜻산뜻 스며들어 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 염상섭, 「만세전」 -

**비슬고등학교 (대구)**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거짓말로 조선인을 속여 일꾼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② ㉡ : 농사의 어려움과 농사꾼들의 궁핍함이 드러난다.
- ③ ㉢ : 검열을 하는 자와 당하는 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 당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려는 서술자의 우호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⑤ ㉤ : 현실에 대한 분노와 자조적 심경 등 복잡한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광희고등학교 (경기)**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세전」은 『신생활』과 『시대일보』(1924. 4. 6~6.7)에 발표된 작품으로 연재될 당시에는 「묘지(墓地)」라는 제목이었는데, 검열에 걸려 연재 3회분이 전문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삭제된 부분을 포함한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만세전」으로 제목이 고쳐졌다.

이 작품은 3·1운동 직전인 1918년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도쿄 유학생인 주인공 이인화가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동안 목격하게 되는 여러 현실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① 착취와 궁핍 속에 사는 당시 조선인들의 실상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 ② 조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본의 비인간적 행태를 폭로하고 있어.
- ③ 당시 조선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유도한 것 같아.
- ④ 식민 통치 세력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에 걸린 것이겠지.
- ⑤ 등장인물들이 일본어로 대화하는 목욕탕 장면을 설정한 것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려는 노력이었을 거야.

**대전대성고등학교 (대전)**

7. [A]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조선 농민들은 일본인 노동자 모집인들의 ( ㉠ )에 속고, 술중(術中)에 빠져 ( ㉡ )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 |              |            |
|--------------|------------|
| ㉠            | ㉡          |
|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 초미지급(焦眉之急) |
| ② 감탄고토(甘呑苦吐) | 속수무책(束手無策) |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사면초가(四面楚歌) |
|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 초미지급(焦眉之急) |
| ⑤ 감언이설(甘言利說) | 속수무책(束手無策) |

**대전고등학교 (서울)**

8. 위 글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서술자는 여행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처음 출발 지점인 동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보아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겪은 여러 에피소드는 당대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이는 다양한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다양한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평고등학교 (경기)**

9. 윗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시대와 사회에 대한 주인공의 분노가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ㄴ. 과거 회상을 통해 지난 일에 대한 주인공의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ㄷ.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인물들의 대립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ㄹ. 익명화된 인물을 통해 당시 지식인의 보편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ㅁ.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휘를 통해 내용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ㅁ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안의 목욕탕에 들었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하구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 무엇 있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賃銀)\*이 험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빛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아니 따라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똥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벼슬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옥객의 한 때가 디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훑치기 시작하였다.

스물두셋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 인간성이 어떠한 사회가 어떠한 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 자(工夫)나 얻어 하였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함일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짜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였다. 나두 팔구 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조각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발을 갈라고 한다. 그러나 발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복옥(馥郁)\*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 이나라…….’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대팻밥모자\*에 연

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붉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방울의 땀과 백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나는, 몸을 다 훑치고 옷 입을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복잡대는 틈에서 부리나케 양복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하시지만, 여기 이인화(李寅華)란이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에, 나요. 왜 그러우?”

나는 꺾자의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꺾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때은 유창하게 한답시는 일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도 짓곳이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될까 봐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옮지 않지 하는 모양이었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배에서 내린 나는 학생복 입은 형사와 함께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 그리고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나에게 하루 묵고 갈 것을 강요하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볼 것을 걱정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방을 열어 조사하고, 서류 문더이를 가져간다. 나는 무사히 풀려나 다시 배에 올라탄다.

짐을 가볍게 해 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원의 꾸지람을 들어 가며 겨우 갑판 위에 올라서자, 기를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馬嘶)소리 같은 기적 소리가 나며, 신경이 재릿재릿한 징 소리가 교향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싸인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리었다.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두어 칸통이나 잔교에서 떨어졌다. 전송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별판에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잔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불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스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 가며 웅승그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력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全市)\*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 가고 수효가 줄어 가면서 깜박깜박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의 날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제, 선뜩선뜩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 가는 불빛이 따뜻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  
**[A]** 물이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 내렸다.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 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 염상섭, 「만세전」

- \*임은 : 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 \* 전차 : 뒷날에 받을 돈을 기일 전에 당겨 씬.
- \*소작인 :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 \*방순(芳醇)하다: 향기롭고 진하다.
- \*복옥하다 :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다.
- \*천려 : 생각이 얕음. 또는 얕은 생각.
- \*조반(早飯) : 아침밥.
- \*대팻밥모자 : 나무를 대팻밥처럼 얇게 깎아 꿰매어 만든 여름 모자.
- \*연경 : 알의 빛깔이 검거나 누런색으로 된 색안경.
- \*고역(苦役) : 몹시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어려운 일.
- \*나락 : '벼'의 방언.
- \*짓궂이 :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게.
- \*호젓이 : 후미져서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하게.
- \*전시 : 도시 전체.
- \*야광주(夜光珠) :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구슬.

**광취고등학교 (경기)**

1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조선인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빌미가 되는 것들이다.
- ② ㉡ : 실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 ③ ㉢ : 지식인 '나'가 조선 독립을 위해 민중을 깨우치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
- ④ ㉣ : 생계수단이 아닌, 취미로 하는 농사일을 의미한다.
- ⑤ ㉣ : 새로 등장한 인물로 '나'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를 파악하고 있다.

**광취고등학교 (경기)**

11. [A]에서 '나'가 느꼈을 감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  
 ㄴ.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고독과 불행  
 ㄷ. 조사를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안도감.  
 ㄹ. 일제의 억압에 저항해온 것에 대한 비참함.  
 ㄹ.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실패한 지식인의 허탈감.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ㄹ, ㄹ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ㄹ

**동우여자고등학교 (경기)**

12. 이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사건에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 ② 중심인물이 주변을 관찰하고 외부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③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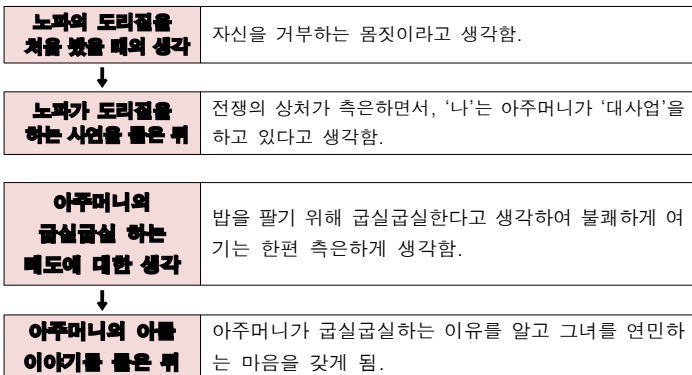
<b>갈래</b>	현대 소설, 전쟁 분단 소설	<b>성격</b>	사실적, 비극적, 심리 성찰적
<b>제재</b>	전쟁과 분단의 상처, 겨울 여행	<b>시점</b>	1인칭 주인공 시점
<b>주제</b>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증언과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따뜻한 애정의 소중함.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현재 - 1970년대 중반 겨울 / 과거 -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 때</li> <li>• (공간) 서울, 온양</li> </ul>		
<b>특징</b>	① 사건 및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사실적으로 그림. ②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다시 돌아오는 '여로 구조'의 작품임. ③ '오해-이해'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진실을 드러냄.		
<b>구성</b>	<b>발단</b>	'나'는 남편이 의붓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헛살았다는 느낌에 빠져 여행을 떠남.	
	<b>전개</b>	충남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며 '나'는 여행지에서도 서러움과 허망함을 느낌.	
	<b>위기</b>	호숫가 여인숙에서 도리질하는 노파와 그녀의 며느리인 주인아주머니를 만남.	
	<b>결정</b>	주인아주머니에게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사연과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만나러 서울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애쓴 사정 이야기를 들음.	
	<b>결말</b>	고부의 삶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나'는 자신이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음.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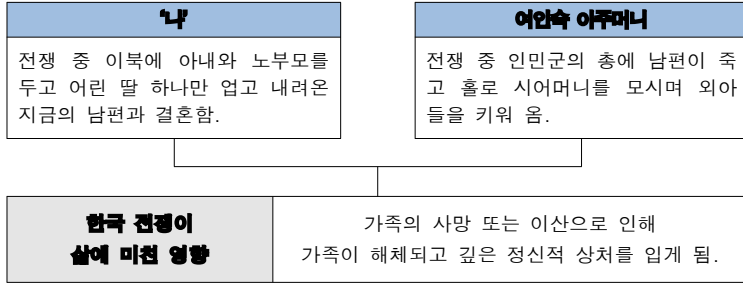
**<겨울 나들이>의 구성 - 역자식 구성**

<p><b>외부 이야기:</b> '나'의 겨울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전쟁 중 면장이던 아주머니의 남편이 집을 떠나 처가로 피신함.</li> <li>• 아주머니는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시어머니가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싫어서' 도리질과 '모른다'를 가르침.</li> <li>• 인민군이 채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옴.</li> <li>• 아주머니의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의 눈앞에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음. 그 후로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고질병이 됨.</li> </ul>
<p><b>내부 이야기:</b>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사연</p>	

**'나'의 심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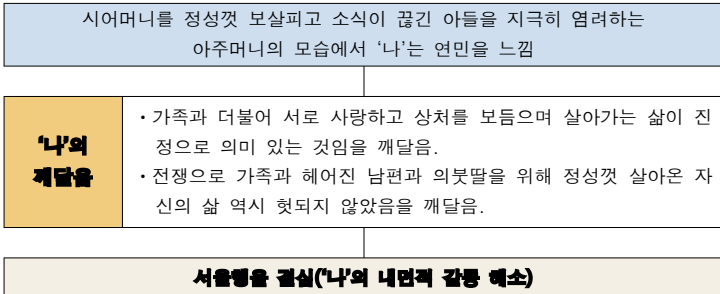
■ 한국 전쟁이 인물이 삶에 미친 영향



■ '대사업'의 의미

- **아주머니가 말한 노파의 '대사업'**
  - 도리질을 멈추지 않는 일
  -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
- **'나'가 생각한 아주머니의 '대사업'**
  - 그런 시어머니의 상처 입은 마음을 깊이 연민하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일
  - ➔ **'나'의 대사업:** 허망하지 않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고부의 삶처럼 가족과 더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의 깨달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의 남편은 난리 통에 어린 딸 하나만 데리고 남쪽으로 온 이북 출신으로, 북쪽에 아내를 두고 온 사람이다. 나는 그와 결혼하여 엄마를 잃은 어린 딸아이를 보살펴 출가시키기 까지 제 아이와 다름없이 키웠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헤어질 당시 젊었던 전처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헛되다는 느낌에 빠진다. 나는 마음을 달래고자 무작정 온천이 있는 온양으로 여행을 떠나왔으나 모두로부터 쫓겨난 듯한 기분에 마음이 내내 불편하다.

그러더니 친동기간처럼 스스럼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끌었다. 난로가 있는데도 뽕 둘러 방장을 쳐 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았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미라에다 옷을 입혀 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멍치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넣어 주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을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는 노파에게 손님이예요, 하도 추워하시기에 안방으로 모셨어요, 했다. 그것으로 노파와 나와 의 인사 소개는 끝났으나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해 쌓았다. 아주머니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 찌고, 동정이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폭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꽃꽂이 앉았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도 처음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서 꼭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저러다가 멋으려니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멋지는 않았다. 몸이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누가 죽인대도 우선 한잠 자 놓고 볼 일이다 싶게 꿀 같은 잠이 덮쳐 왔다. <중략>

그것은 6:25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갑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수룩하고 고지식하 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싫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야밤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 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중략>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났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던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똥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여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 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궁지로 아주머니의 얼굴 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㉞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중략>

“미신이라뇨?”

“네,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 갖고 서울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게고, 콩콩 뭉쳐 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고, 뭐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㉞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돼 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나는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대한 크나큰 근심을 달래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찼했다. 내가 점괘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언짢지 않았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중략>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 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 보고 싶어졌다. 남남끼리이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맥맥이 흐르는 그 무엇을 직접 내 손으로 맥 짚어 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 두고 싶었다. 마치 ㉞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닿아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내 유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암, 헛살지 않았고말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대진고등학교 (서울)**

1. 위 글의 작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 -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 아픔은 아직 우리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 ② '나' - 네. 저도 북쪽에서 월남한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직 북쪽에 있는 전처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 ③ '나'의 남편 -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④ 작가 -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거의 실성하다시피 해서 전쟁 전부터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신 아주머니도 한 말씀 하시죠.
- ⑤ 아주머니 - 가엾은 시어머니를 제가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진고등학교 (서울)**

2.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는 노파가 자신을 거부하는 몸짓이라고 생각하여 어색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 - 흥흥한 세상이어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잘 적응하여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 ③ ㉢ - 자신의 바로 앞에서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충격으로 전쟁으로 인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의미한다.
- ④ ㉣ - 아주머니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다녀오는 동안 노파가 혼자 편안히 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⑤ ㉤ -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대진고등학교 (서울)**

3. ㉠, ㉢가 의미하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각각 서술하시오.

<조건>
1.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사용할 것. 2. '~는 것'의 형태로 끝마칠 것.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별써 이십오 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걸요.”

“이십오 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이십오 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 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중략>

그것은 6·25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짧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안전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어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썩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실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볶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몰러갔다는 증거도 안 몰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펠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터 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털발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 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쇠뿔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 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

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

**배곧고등학교 (경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는 중심인물이 겪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을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의문과 오해가 풀려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⑤ 내부 이야기의 중심 사건을 체험한 주체와 작품의 서술자가 일치하고 있다.

**배곧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할머니의 도리질'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십오 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면서 힘들게 살 수 밖에 없었던 할머니가 참 불쌍해.
- ②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져.
- ③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데서 오는 자책감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 ④ 자신에게 '모른다'는 연습을 시켜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며느리에 대하여 반감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여.
- ⑤ 온전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겠지만, 할머니의 도리질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 돼.

**배곧고등학교 (경기)**

**6. ㉠과 ㉡이 의미하는 것을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서울고등학교 (서울)**

**7. ㉠'흐르는'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예문을 <보기>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단, 한 문장만 쓸 것)**

<보기>

온몸에 땀이 흐른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감나무 잎사귀에 윤기가 흐른다.  
오늘따라 옷차림에 촌티가 흘렀다.  
밤하늘에 흐르는 달빛을 좋아한다.  
외할아버지는 외곶으로만 흐르는 성격이다.  
고무줄이 끊어져서 체육복 바지가 흘러 버렸다.  
이 전신주에는 고압 전류가 흘러 매우 위험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것은 6:25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잠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수룩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졌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굿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뿐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둬들인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 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썩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실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뿜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몰려갔다는 증거도 안 몰려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 위원회가 쓰던 이장 집 마당 깃대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펠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티 봤잖아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 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통통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단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나)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 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점심값과 방값이 도합 팔백 원이라고 했다. 나는 천 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 두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볼쾌할 만큼 굼실굼실 고마워했다. 아까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지만 통틀어 천 원인데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게 구나 싶었다.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여색하게 곁돌아 더 보기 흥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준 돈 천 원을 소중하게 스웨터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걸로 노자 해 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나는 나중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

가 했구나 생각했다.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서울고등학교 (서울)**

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머니를 대하는 ‘나’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② ‘서울’에 대한 ‘아주머니’와 ‘나’의 시각차가 드러나 있다.
- ③ 남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있다.
- ④ 직접 인용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아주머니’의 언행이 ‘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서울고등학교 (서울)**

9. <보기>의 [A] 관점에서 (가)와 (나)를 감상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시어머니’와 ‘그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② (나)에서 ‘시어머니’의 반복적 행동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③ (가)와 (나)의 시간 변화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가)와 (나)의 인물들의 상처에 주목하여, 당시 한국전쟁 경험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 ⑤ (가)와 (나)의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간접제시’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고등학교 (서울)**

10.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 ㉠ )에 들어갈 내용을 문맥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전체줄거리

‘나’는 남편이 의붓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헛살았다는 느낌에 빠져 여행을 떠난다. 우연히 호숫가 여인숙에서 노파와 아주머니를 만나,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사연과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미신을 만든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 ㉠ ) 것이 ‘나’의 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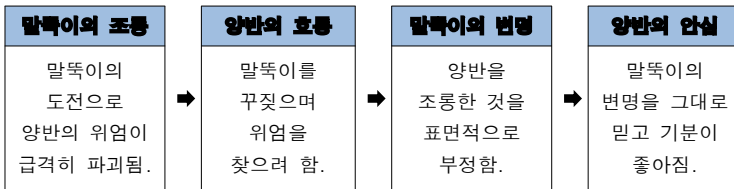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정리**

<b>갈래</b>	가면극(탈춤) 대본	<b>성격</b>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b>제제</b>	양반과 말뚝이의 대결	<b>주제</b>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b>특징</b>	① 익살, 과장, 언어유희 등을 사용하여 풍자가 이루어짐. ②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음. ③ 재담마다 한데 어울려 추는 춤과 음악으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됨. ④ 서민적인 비속어와 양반 투의 한자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임.		
<b>구성</b>	<b>발단</b>	<b>인물들의 등장</b>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함.
	<b>전개1</b>	<b>말뚝이의 재담</b>	말뚝이가 양반 소개, 담배 금지 등의 재담을 통해 양반을 조롱함.
	<b>전개2</b>	<b>양반들의 허세 폭로</b>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해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냄.
	<b>전환</b>	<b>취발이 잡아들이기</b>	취발이를 잡아들이라는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전령으로 취발이를 잡아들이고 심문함.
	<b>결말</b>	<b>인물들의 퇴장</b>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퇴장함.

**핵심 내용**

■ **작품의 재담 구조와 풍자성**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풍자하는 것임.

■ **양반의 모습과 행동에 담긴 의도**

<b>양반의 모습과 행동</b>	→	<b>의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 비정상적인 모습</li> <li>· 도련님은 대사 없이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굶. → 방정맞은 행동</li> </ul>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 조롱, 희화화하려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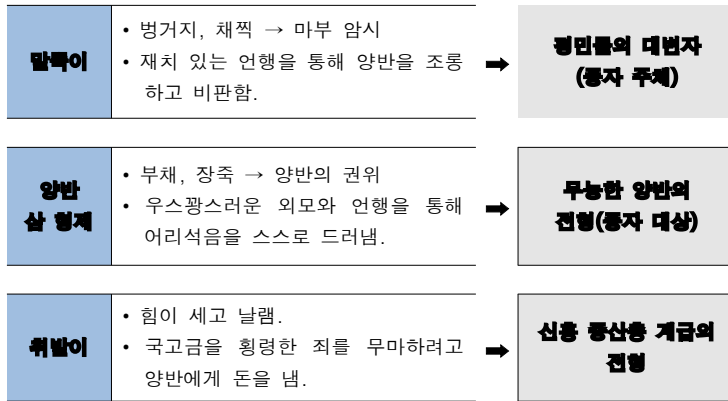
■ **‘쉬이’와 ‘출’의 기능**

<b>쉬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림.</li> <li>· 극적 분위기를 조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반주)과 춤을 멈추게 함.</li> <li>·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킴.</li> </ul>
<b>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를 알림.</li> <li>·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함.</li> <li>· 재담과 재담 사이를 구분함.</li> </ul>

■ **관객과 악공의 역할**

<b>관객</b>	·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말뚝이와 한편이 되어 극 중 현실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
<b>악공</b>	· 놀이판의 배경 음악을 제공하고 장단을 맞추며 때때로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을 하기도 함. · 관객과 마찬가지로 말뚝이와 한편이 되어 극에 능동적으로 개입함.

■ **등장인물의 역할과 신분**



■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 ‘전령’은 당시에 여전히 신분 질서의 위력이 남아 있었고 양반의 권위가 건재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부패한 사회상을 나타낸다.

■ **작품에 나타난 가면극의 특성**

<b>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b>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여보, 악공들 들으시오.’
<b>무대 장치가 없음.</b>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b>장면 전환이 자유로움.</b>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b>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함.</b>	양반들의 부정적인 걸모습과 행동, 양반의 뜻풀이, ‘노새 원님’이라는 표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A]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째따란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B]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매주 밭드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걸결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디다.

생원 : 이놈, 뭐야! <중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룬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록줄록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중략>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록줄록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래이 비호(飛虎) 같은데, 생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여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녀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녀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㉔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㉕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나타난 말뚝이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담을 시작하는 말을 하며 극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②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며 대상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음절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경어체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대상을 높이면서도 이면적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을 드러내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봉산탈춤이 공연되던 당시에는 서민들이 지배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을 풍자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을 웃게 하였는데, 이는 '비판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개질량', '개다리소반' 등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의 위엄을 격하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한 발 가웃'이나 되는 '육모깍지' 등을 맞추어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양반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버드나무 홀뜨기', '바가지장단'과 같이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는 소재를 활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노새 원님'을 '말뚝이님 내'가 탄다는 표현을 통해 양반과

말뚝이의 상하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울장'을 꽃아 '깃'을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㉔~㉕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시조와 주제가 같은 민요를 부름으로써 양반의 허세가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㉕ : 학식을 자랑하는 놀이는 결국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전략하고 있다.
- ③ ㉔ : 기존의 신분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통해 양반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㉕ : 당대에도 양반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피지배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㉕ :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상을 근거로 부정을 저지른 취발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A], [B]를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민속극이란 분장을 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이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전해져 온 민간 전승의 연극이었기 때문에 민속극의 대사는 고정된 대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윗글의 [A], [B]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극은 서양의 연극과 다르게 \_\_\_\_\_ 이와 같은 민속극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함으로써 민속극의 형식과 내용은 전승되면서도 공연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긱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째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긱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중략>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들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나)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뿔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랜이 비호(飛虎) 같은데, 생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옳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생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생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생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긱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김진옥·민천식 구술, 「봉산탈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주의를 환기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② ㉡ :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 ③ ㉢ :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 : 관객이 극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사이며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민속극의 특징을 드러낸다.
- ⑤ ㉤ : 양반의 위엄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후 갈등이 해소되어 재담이 마무리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6.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양반 문화의 일종인 시조이며 양반이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읊은 것이다.
- ② ㉡는 평민들의 노래인 민요로서 ㉠와 같이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노래이다.
- ③ ㉠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를 통해 말쑥한 양반들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④ ㉢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명을 나열한 말장난으로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 ⑤ ㉠, ㉡, ㉢는 결국 양반의 허세와 무식함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7. (다)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저 하늘이 백성을 만들 때 네 가지 부류로 만들었다. 넷 중 가장 존귀한 것은 선비이니, 이를 곧 양반이라 칭하며 더 이로운 것은 없다. 밭을 갈지도 않고 장사를 하지도 않지만, 글만 조금 하면 크게는 문과(文科)에 오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진사(進士)는 할 수 있다. 문과에 급제하여 받는 홍패(紅牌)라는 것은 크기는 두 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돈주머니와 같다. 진사(進士)는 나이 삼십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 높은 음관(蔭官)이 될 수 있으니 다른 높은 벼슬도 할 수 있다. 꺾바퀴는 일산(日傘) 바람에 휘어지고 배는 하인들의 ‘예’ 하는 소리에 불려진다. 방에는 귀엣고리 요란한 기생들이요, 정원 나무에는 목청 좋게 우는 학을 키운다. 가난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살아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을

불러다가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부로 한들 그 누가 나를 탓하라. 그들의 코에 잣물을 들어 부은들, 상투를 잡아맨들, 수염을 잡아 뽑은들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라.”

부자는 그 문서가 씌어지던 중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둬. 정말 맹랑하구려. 장차 나를 도적으로 만들 셈이오?”

말을 마치자마자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도망가 버렸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 박지원, 「양반전」

- ① 양반의 부정부패와 부당한 횡포가 있었다.
- ②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했다.
- ③ 천민 계층이 양반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
- ④ 신분의 매매가 용인되어 신분제의 동요가 있었다.
- ⑤ 부를 축적하고 윤리의식을 갖춘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8. 민속극과 현재의 연극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민속극	현재의 연극
㉠	대사, 노래, 춤 등으로 이루어짐	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	무대 공연 장치 없이 표현함	무대장치를 사전에 제작함
㉢	관객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대체로 관객은 극에 개입하지 않음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함
㉤	대체로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엮인 피카레스크식 구성임	대체로 한 편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내용을 이루는 구성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뚝이 : (버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말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께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나)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دت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라)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밧뚝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걸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마)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황해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면극 중 하나이다.
- ②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하여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③ 가면의 힘을 빌려 실제 사회에서의 귀천이나 상하 관계의 틀을 깨고 하층민의 울분을 해소하는 구실을 한다.
- ④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 순으로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된다.
- ⑤ 모순되고 억압된 현실을 폭로하고, 한편으로 웃음을 유발하여 감정을 정화하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중 해학과 풍자가 담겨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0.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가) -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 인물 소개 부분으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나) -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재담으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③ (다) - ‘담배’와 ‘흰화’에 대한 재담으로 말뚝이의 거짓 해명에 속는 어리석은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④ (라) - ‘말뚝이’의 양반 찾기 재담으로 언어유희, 과장, 열거, 대구 등의 다양한 표현법이 쓰인다.
- ⑤ (마) - 운자 놀이를 통해 ‘말뚝이’가 양반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고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의 효과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 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 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처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치다 펴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文房諸具) 볼작시면 용장 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룡(函籠), 반달이, 셋별같은 놋요강, 놋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났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 났다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꿀물에다 축여 났다네. (긋거리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 (새처 안에 앉는다.)  
 (나) 생원 :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 부르게.  
 서방 : 논두렁에 살피 짚고 췌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 하하, 그것 형님 잘 맞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바리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여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2. 윗글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말뚝이’는 당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신분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
- ② ‘말뚝이’는 표면적으로는 양반에게 반항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양반들에게 복종하고 있다.
- ③ ‘양반들’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조선 전기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④ ‘양반들’은 권위에 쉽게 굴복하고, 자신의 무능과 허위를 남에게 전가하는 인물이다.
- ⑤ ‘취발이’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당시 세력이 막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3.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서 장면 전환이 자유로운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을 (가)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4. (나), (다)를 통해 양반의 어떠한 면을 풍자하고 있는지 각각 서술하십시오.

**정리**

<b>갈래</b>	현대 희곡, 단막극	<b>성격</b>	풍자적, 우화적, 상징적
<b>제재</b>	촌장과 파수꾼 이야기	<b>주제</b>	거짓 현실에 대한 비판, 진실을 밝히는 일의 소중함과 어려움
<b>특징</b>	① 널리 알려진 이솝 우화 ‘양치기 소년’을 바탕으로 현실을 우화적으로 다룸. ②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인물들과 소재를 다룸. ③ 해설자가 극에 등장하여 작품 내용을 설명하고, 한 배우가 여러역을 맡으며, 관객들이 작중 인물을 대신하는 등 실험극의 성격을 보여줌.		
<b>구성</b>	<b>발단</b>	망루에 새로 온 ‘파수꾼 다’가 기존의 ‘파수꾼 가’, ‘파수꾼 나’와 함께 파수를 보게 됨.	
	<b>전개</b>	‘파수꾼 다’는 ‘파수꾼 가’가 보았다고 외치는 ‘이리 때’가 사실은 ‘흰 구름’임을 알게 됨.	
	<b>위기</b>	‘파수꾼 다’는 자신이 본 것을 쪽지에 적어 운반인에게 맡기고, 이를 촌장에게 전해 달라고 함.	
	<b>결정</b>	‘파수꾼 다’의 쪽지를 읽은 촌장은 ‘파수꾼 다’를 찾아오고, 촌장의 회유에 넘어간 ‘파수꾼 다’가 진실 밝히기를 하루 늦춤. ‘이리 때’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망루 앞으로 몰려들었으나 ‘파수꾼 다’가 결국 진실을 밝히지 않음.(교과서 수록 부분)	
	<b>결말</b>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일생을 망루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함.(교과서 수록 부분)	

**핵심 내용**

■ **작품에 나타난 소재의 상징적 의미**

<b>이리 때</b>	꾸며낸 거짓,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지배 이념
<b>흰 구름</b>	이리 때의 실체로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가리킴.
<b>망루, 양철 북, 깃발</b>	거짓으로 꾸며낸 이리 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들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 민중 통제의 수단
<b>딸기</b>	부당한 권력으로 얻은 이익이자 상대방(파수꾼 다)을 설득하기 위한 회유책
<b>도끼</b>	권력자가 민중을 협박하기 위해 언급하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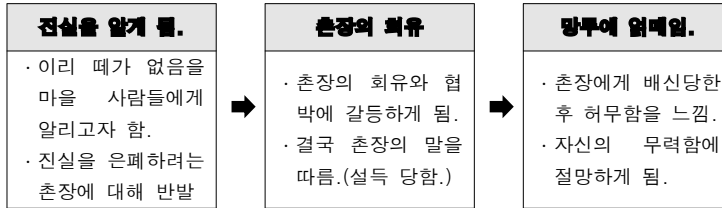
■ **실험극으로서의 특징**

특징	작품 내용
<b>해설자가 극에 등장하여 작품 내용을 설명함.</b>	<b>해설자</b> (관객들에게 누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
<b>한 배우가 여러 역을 맡음.</b>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b>관객들이 작중 인물을 대신함.</b>	<b>촌장</b>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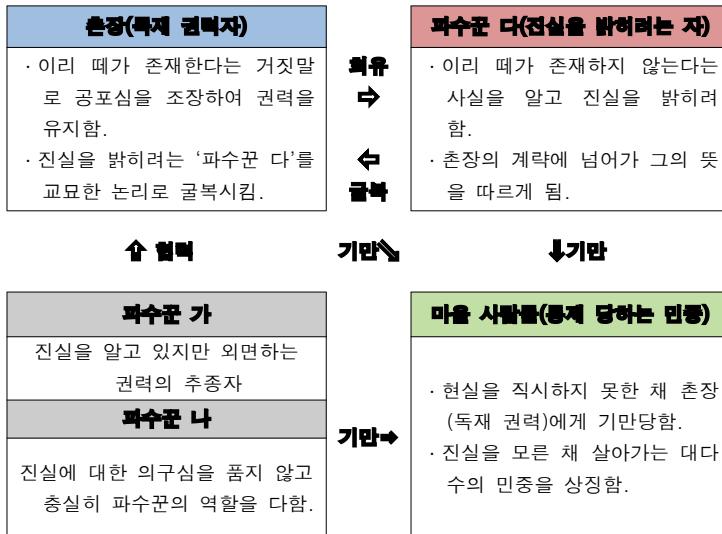
■ 이 작품에 나타난 관객 참여의 효과

<b>'마을 사람들'- 관객</b>	①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있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함. ②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함. ③ 관객 스스로가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음.
-------------------------	---

■ '파수꾼 다'의 심리 태도 변화



■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파수꾼들은 마을 밖 황야에 세워진 망루에서 이리 떼가 나타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양철 북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대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다'는 망루 아래서 이리 떼의 습격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외침과 북소리에 항상 겁먹고 긴장한다. 마을에서는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일도 일어난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망에 올라갔다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 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충격에 빠진다.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편지를 써 이리 떼의 정체가 거짓임을 알린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열골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댕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짙레 덩굴 밑이던가요…….  
 나 :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오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나?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댕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댕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구?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 그래, 외치마.  
 다 : 아, 이젠 됐어요!  
 촌장 :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 뭘 망설이시죠?  
 촌장 :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 살인이라고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 아니예요, 그건!

촌장 :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다 :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 그것 봐. 난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  
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  
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 물론 약속하지.

다 : 정말이죠. 정말?

촌장 :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중략>

나 :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  
시 아픕니다.

촌장 :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다 :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 고마워요…….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요?

촌장 :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 마을 사람들요?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리 때문이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  
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중략>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  
짖는다.

다 :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  
다.

가 :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촌장 :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  
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  
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지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중략>

촌장 :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  
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 ……네?

촌장 : 마을엔 오지 마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중략>

촌장 : 그럼, 잘 있거라.

나 : 가지려고요, 촌장님?

촌장 :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나 :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덧도 좀 살퍼 볼 겸 해  
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 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았던가요?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  
진다. 잠시 후,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  
수꾼 '다'는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 이강백, 「파수꾼」

**대륜고등학교 (대구)**

1.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의 존재를 믿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 ② 파수꾼 '가'는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 ③ 파수꾼 '나'는 촌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서도 파수꾼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인물이다.
- ④ 파수꾼 '다'는 '이리 떼'의 정체를 끝내 깨닫지 못함으로써 진실을 드러내는 데 실패하는 인물이다.
- ⑤ '촌장'은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강백은 1970년대의 억압적인 정치·사회 상황 속에서 제도적인 폭압 체계를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성공한 작가로 평가된다. 특히 제도적인 폭압 하에서 신음하는 개개인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이 이면에서 횡행하고 있는 권력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에 더욱 주안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파수꾼」은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포티프로 하여 1970년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동원된 안보 논리를 우화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 ① '도끼'와 '망치'는 당시 사회를 억압하던 권력의 폭력성을 의미한다.
- ② '편지'와 '양철 북'은 권력의 위선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뜻한다.
- ③ '이리 떼'와 '망루'는 당시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되던 안보 논리를 가리킨다.
- ④ '병'과 '살인'은 당시 제도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된 개인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한다.
- ⑤ '흰 구름'과 '딸기'는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폭압적인 권력에의 저항을 나타낸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3. ㉠~㉣에 담긴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위선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이다.
- ② ㉡ : 인물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이다.
- ③ ㉢ : 관객을 극중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④ ㉣ :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다.
- ⑤ ㉤ :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극적 반전을 음향 효과를 통해 암시하고 있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4. <보기>의 ㉠과 ㉡를 고려하여 [A]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완성된 문장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보기>

선생님 : '파수꾼'은 어떤 작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 '양치기 소년과 늑대'요  
 선생님 : 맞아요.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에요. 혹시 우화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학생 :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놀리다가,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양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 잘 알고 있네요. '파수꾼'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감시하고 제한하던 1970년대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을 창작했어요.  
 학생 : 그렇군요.  
 선생님 : 그렇다면 이렇게 우화를 원작으로 새롭게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과 ㉡를 고려해서 말해볼까요?  
 학생 : [A] 첫째, ㉠를 고려할 때 ( ) 할 수 있는 효과 ( )가 있다. 둘째, ㉡를 고려할 때 ( ) 할 수 있는 효과 ( )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촌장 :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래 이 곳엘 찾아온 거예요.

나 :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 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어 있었습니다.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짙레 넝쿨 밑이던가요…….

나 : 드디어 붙잡는군요!

(나)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잃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 이강백, '파수꾼'

**인향고등학교 (인천)**

**5.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 위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하여 쓴 글이다.
- ② 등장인물의 수가 제한되고 인물의 성격적 대립이 뚜렷하다.
- ③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 ④ 소설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 ⑤ 배우, 무대, 관객과 함께 연극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6. ㉠ ~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촌장'의 위선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친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인물을 설정하고 있군.
- ② ㉡ : '나'를 내보내고 '다'와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군.
- ③ ㉢ :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시켜 준 '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 : '촌장'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수다쟁이로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군.
- ⑤ ㉤ : '촌장'은 자신이 '이리 떼'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군.

**인향고등학교 (인천)**

**7. 윗글에 나타난 ㉠, ㉡의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조건>

- 1. 반드시 문장으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었습니다.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짚레 덩굴 밀이던가요…….

나 :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 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닢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오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닢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았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닢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서 울타리를 돌렸다. 망루두 세웠구, 양철 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 그래, 외치마.

다 : 아, 이젠 됐어요! 뭘 망설이시죠?

촌장 :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몰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 살인이라고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찌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 내릴 거다. 끔찍해. 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 아니에요, 그건!

촌장 :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다 :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 물론 약속하지.

다 : 정말이죠. 정말?

촌장 :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중략>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 마을 사람들요?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 애야, 괜찮겠니?

다 : …… 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몰려갔다!

촌장 :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하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지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나 :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 이강백, '파수꾼'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수꾼 '다'는 촌장이 진실을 알면서도 감추어 왔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② 파수꾼 '다'는 '촌장'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였다.
- ③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안 순간 체제의 유지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④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속이는데 성공하였다.
- ⑤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가공의 존재로 이리 떼가 제시되고 있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9.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촌장이 파수꾼 '다'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파수꾼 '나'를 내보려고 한 거짓말이다.
- ② ㉡ :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 ③ ㉢ : 촌장은 안전을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
- ④ ㉢ : 파수꾼 '다'가 거짓말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⑤ ㉢ : 다시는 진실을 말하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처벌하려는 것이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10. ㉠ ~ ㉤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 부정한 대가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③ ㉢ : 상대방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여 떠넘기고 있다.
- ④ ㉣ : 논리적 논법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 ⑤ ㉤ :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냐?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닳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나?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닳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너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닳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너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고?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지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

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 그래, 외치마.

다 : 아, 이젠 됐어요!

촌장 :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 뭘 망설이시죠?

촌장 :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 살인이라고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 아니에요, 그건!

촌장 :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다 :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난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 그것 봐. 너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너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너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 물론 약속하지.

다 : 정말이죠, 정말?

촌장 :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가 들어온다.

나 :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 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촌장 :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구 싶었는데…….

촌장 :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다 :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 고마워요.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 마을 사람들요?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물어봅시다.

- 이강백, 「파수꾼」

**운양고등학교 (경기)**

11. **윗글에서 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가상의 존재를 설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있다.
- ③ 자신과 함께 마을을 지배하자는 회유책을 제시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다음에는 상대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상대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 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운양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의 ㉠, ㉡에 대응되는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알맞게 배열한 것은?

<보기>

누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뒹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 속 ㉡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후략)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        |      |
|--------|------|
| ㉠      | ㉡    |
| ① 망루   | 도끼   |
| ② 이리 떼 | 양철 북 |
| ③ 이리 떼 | 흰 구름 |
| ④ 흰 구름 | 이리 떼 |
| ⑤ 흰 구름 | 도끼   |

**운양고등학교 (경기)**

13. 윗글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의 함축적 의미를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십시오.
- (2) 파수꾼 '나'가 ㉡과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극 문학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십시오.

**3-(2) 구운몽**

1.㉠ 꿈 ㉡ 깨달음을 얻기 전 <구운몽>의 성진은 부귀공명과 입신양명을 추구하지만, <조건1>의 '조신'은 사랑의 성취를 바란다. 2.㉡ 3.㉡ 4.㉣ 5.㉡ 6.㉠ 7.㉡ 8.㉡ 9.㉣ 10.㉡ 성진과 팔선녀(아홉 명의 인물) ㉣ 삶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덧없음(인생무상) 11.㉡ 신라, 낙산사 ㉣ 정토사 12.㉡ 13.㉡ 14.㉢ 15.몸: 용궁에 가서 술에 취했다. 말씀: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했다. 뜻: 세상의 부귀영화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여 한탄했다. 16.㉠ 17.㉣ 18.㉡ 19.(가)는 '정토사'라는 구체적 증거물이 존재하므로 '전설'이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1)인생무상, 한단지몽, 일장춘몽, (2)세속적 욕망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34.㉠ 35.㉡ 36. <보기>의 주제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이며, '꿈'은 인생이 한순간 꿈과 같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37.㉢ 38.㉣ 39.㉣ 40.㉠

**3-(2) 만세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일제가 감추고 싶은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1.㉡ 32.㉡ 33.㉢ 34.'민족적 활로'는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고 독립을 도모하는 길을 의미하고, '몽유병'은 식민지 상황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조선인의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35.㉣ 36. 두 작품은 여로형 구조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뒷글에서의 판단 근거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나'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올라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기>에서의 판단 근거는 '구보 씨'가 정오에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전차를 타고, 경성역을 찾아가고, 다방에서 친구를 만난 후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동안 이동한 공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37.㉢ 38.㉡ 39.㉢ 40.㉡ 41.㉡ 42.㉡ 43.㉢

**3-(2) 겨울 나들이**

1.㉣ 2.㉣ 3.㉡는 노파가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고 도리질을 하는 것 ㉢는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 4.㉡ 5.㉣ 6.㉠은 아들을 지키겠다는 할머니의 의지이다. ㉡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겠다는 의미이다. 7.감나무 잎사귀에 윤기가 흐른다. 8.㉡ 9.㉣ 10.가족과 더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

**3-(3) 봉산 탈춤**

1.㉡ 2.㉢ 3.㉡ 4.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다. 5.㉡ 6.㉢ 7.㉠ 8.㉡ 9.㉡ 10.㉡ 11.재담과 재담을 구분한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12.㉡ 13.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14.(나):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한다. (다): 양반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풍자한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부패와 황금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33.㉡ 34.㉠ 35.㉣ 36.(1)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2)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37.㉢ 38.㉣ 39.㉡ 40.㉡ 41.(1) 말뚝이의 변명, 말뚝이의 조롱, 재담의 시작 (2) (다)와 (라)는 모두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지만, (다)는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시조이고, (라)는 평민층이 주로 향유하던 민요이다. 42.㉢ 43.㉡

**3-(3) 파수꾼**

1.㉠ 2.㉢ 3.㉡ 4.첫째, ㉡를 고려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를 고려할 때 민감한 내용을 상징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독재 권력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 6.㉢ 7.㉣는 독재 권력이 누리는 부당한 이익을 상징한다. ㉢는 공포를 조성하여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가공의 존재이다. 8.㉡ 9.㉢ 10.㉣ 11.㉢ 12.㉣ 13.(1)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명분으로 촌장 혼자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수단이다. (2) 극갈래는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여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관객을 등장인물로 끌어들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 한다. 14.㉣ 15.㉢ 16.㉡ 17.㉡ 18.㉠ 19.㉡ 20.파수꾼 '가'는 진실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순종한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고